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1월 2일(월) 제 3428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수억 '우회 지원' 의혹

메가어스엑스포 참가비 지원 논란
2022~2026년 국·도비 수억 원 투입
기업 경유해 주관사에 참가비 납부
5년간 거래처 주관사 한 곳 집중

(7)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혈세 낭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접대 논란, 특정 업체 독식 의혹 등의 각종 문제점을 20차례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를 둘러싼 특정 대행사 독식과 편법 예산 집행 의혹이 전북대학교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 이어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인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글로벌 진출 지원(JSGP, GLX 등)' 사업을 통해 매년 수천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규모의 국비 및 도비 예산을 편성해 메가어스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센터는 행사 대행사와 직접 용역 계약을 맺거나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대신, 참가 기업을 선정해 기업 계좌로 부스 참가비 명목의 사업화 지원금(2022년 500만 원, 2023~2025년 600만 원, 2026년 700만 원)을 개별 교부하고, 선정 기업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 다시 메가어스 엑스포 한국 공식 주관사 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센터의 최근 5개년 치 지출 증빙 서류에 첨부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청구서), 참가신청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참여 기업들의 거래 상대방은 예외 없이 해당 주관사 한 곳으로 집중돼 있었다.

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 대표 A씨는 "기업 입장에서는 센터로부터 통장에 들어온 지원금을 주관사 계좌로 그대로 이체하는 '자금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계약 조건이나 부스 단가가 적정한지 따져볼 수도 없었고, 정작 현지 지원은 부실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센터는 정규 국비 사업비가 배정되기 전 기관공통지원경비(간접비)를 활용해 5,000만 원(2022년)에서 1억 5,000만 원(2023년)을 선지출하는 방식으로 참가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본예산 교부 전에 기관 간접비를 활용해 민간 행사의 참가비를 우선 집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행정 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업화 지원금(민간이전) 경유'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거액의 계약을 직접 맺을 때 적용되는 법적 입찰 의무나 감사 부담을 피하기 위한 우회 지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비와 교비 예산이 해당 주관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내 창업·공공기관 전반의 해외 박람회 지원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창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직접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참여 기업에 참가비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계약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비켜갈 수 있다"며 "정규 예산 배정 전 간접비까지 끌어다 쓰며 특정 행사의 참가비 납부를 맞춘 배경과 예산 흐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회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 본보가 센터 고위 임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최성민 기자



새만금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건의 이원택 지사가 지난달 28일 새만금33센터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 전환 '청신호'

박홍근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민자서 국가 재정사업 전환 추진
118만㎡ 규모 배후부지 조성 대상
道, 기본조사 용역비 5억 반영 건의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 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신항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실행을 요청하고, 신항 배후부지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공 주도로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항만 인프라 조성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준공된 접안시설 2선석의 개장과 관련 인프라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또한 기존 민자 방식으로 계획돼 추진이 더뎠던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배후부지 재정전환을 건의해 왔고, 취임 후에도 최우선 과제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질의·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고정삼 도 경제부지사도 새만금위원회 회의에 앞서 배후부지(1-1단계) 재정전환과 가호안·매립호안(1-2단계) 축조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5억 원의 2027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배후부지는 물류·산업시설이 들어서는 항만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부두가 준공되더라도 배후부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항만 기능이 제한되고 민간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으로 산업단지 확대와 공공주도 개발 방향이 마련되면서 배후부지 역시 재정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커졌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목포·보령 등의 신항 배후부지가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여기에 현대차가 2030년 로봇 수출입 생산시설 가동을 앞두고 있어 2029년 이전 항만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조성이 늦어지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와 신규 기업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전환이 이뤄지면 민자 추진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항만 조기 활성화와 기업 생산 일정에 맞춰 배후부지를 제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 물류 수요 대응은 물론 물류·산업 거점 기능 강화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전환 방안이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새만금항 신항은 2011년부터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76억 원을 들여 부두 9선석과 배후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정전환으로 건의한 1-1단계 배후부지는 118만㎡ 규모로, 사업비는 2,056억 원가량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새만금항 신항이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 부처와 후속 협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며 "기획예산처의 협의 방침이 실질적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李 지지율 39%로 다시 하락…민주당도 출범 후 최저

한국갤럽 조사서 40%선 다시 이탈
부정평가 49%…긍정과 10%p 격차
국힘 30%로 상승…양당 격차 5%p

'한국갤럽' 조사에서 40%선을 회복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30%선으로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월 27~2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9%로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수주동안 30%선에서 횡보하다가 전주에 40%선을 회복했었다.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린 49%였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민주당 지지층(78%)·성향 진보층(70%)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6%)·보수층(78%)에 많았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3%:49%)은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별로 보면 여성(40%:44%)은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38%:54%) 중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직무수행 부정평가자(490명, 자유응답)는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19%), '경제/민생'(17%), '국방/안보/대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외교', '인사(人事)'(이상 4%) 등을 꼽다.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올해 10월 2주와 동률)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한 최고치(9월 1주와 동률)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최소인 5%포인트로 좁혀졌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64%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道, 우분고체연료화 확대…새만금 수질개선 '속도'

5개 시·군에 1988억원 투입
2031년까지 고체연료화 시설 확충
집단에너지 사업장 수요처 발굴
보조원료 실증·기술 개발 병행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연료 수요처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1년까지 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5개 시·군에 총 1,988억 원을 투입해 하루 81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료 수요처 발굴과 보조원료 실증, 생산기술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 발전소와 집단에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사용량과 발전설비 특성 등을 분석한다. 오는 12월까지 설비 적합성과 수요 가능성을 평가해 우선 협력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심층 인터뷰 등을 거쳐 수요처 확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에 관한 규제특례 실증기간이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보조원료 활용 가능성을 추가 검증한다. 폐버섯배지와 억새풀 등을 대상으로 발열량과 연료 품질을 시험하고, 실증 결과를 안정적인 연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연구개발사업(50억 원)과 연계해 고품질·저비용 생산공정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시·군 및 축협과 매월 실무협의회를 열어 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전북도>

김철태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투자 현장거점 군산에 마련

새만금사무소 개소…사업 현장 지원
도·새만금청과 상시 소통체계 구축
AI 데이터센터·로봇 등 단계적 추진
인허가 개선 대응 사업 이행 뒷받침

현대자동차그룹이 군산에 새만금사무소를 열고, 약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사업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협력 거점을 갖췄다.

도는 지난달 30일 군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 테크비즈프라자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는 지난 2월 투자협약 이후 새만금 현지에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현대차그룹과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산업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사무소는 테크비즈프라자 4층에 자리 잡은 현장사무소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며 가교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현대차그룹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공유하며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 기관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27일 정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수소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그룹은 2026년부터 새만금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과 주요 지원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협업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사무소 개소는 지난 2월 투자 약속을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이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道,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예방 강화

전북도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불의 연중화·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산불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5개 조 25명의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평일과 주말·공휴일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완전 진화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상황관리와 진화 지휘·통제, 시·군별 대응상황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도내 가을철 산불은 총 24건으로 7.69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6건(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3건(12%), 기타 5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산불감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분석해 연기와 불꽃을 감지하는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운영하고, 남원·진안·고창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3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기 진화에 나선다.

산불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피해 면적 10ha 미만은 시·군 중심으로 초기 대응하고, 10ha 이상 100ha 미만은 산불 1단계, 100ha 이상은 산불 2단계로 구분한다. 초기 대응과 1단계는 시장·군수 등이, 2단계는 도지사 지휘 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능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상황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김민석 "국힘,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사안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안 도출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림픽공원의 투표용지가 공개검증되었다.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만 무한정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검증을 진행했으며, 검증 후 투표용지는 선관위로 이송됐다.

공개검증에는 특검팀 110명, 선관위 직원 500여명, 국회와 언론 참관인 150여명 등이 참여해, 투표용지 인쇄상태 상태 등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투표용지 인쇄 상태와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도 점검했다"며 "특검팀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특검의 신속한 조사 결과 공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라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철통같이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민주당, 농지 소유·이용관계 정상화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오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촌 현장의 제도적 불일치와 결함을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안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상속·고령·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과 실제 이용 현황·공부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완 입법으로,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 가족 간 경작이나 교환경작, 장기 방치된 농업용시설 등 복잡하게 누적된 권리관계를 정상화·양성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말끔히 해소하고,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와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 것이다.

먼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휴경 등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를 두어 처분의 불활실성을 제거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등에 대한 처분 특례를 두어 요건을 갖춘 불법 농업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농지의 개인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차 허용 사유 이외에도 농업경영이용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허용하고 농어촌공사에 지정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중·종교단체 등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소유자가 불명확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임대차계약의 문제를 해결한다.

특별조치법안은 총 4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특례에 따른 지목 정리 등의 효력은 법 만료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의 입법안 논의를 한 뒤에 16일엔 입법공청회, 24일엔 법안소위 심사와 연내 입법 완료 등의 입법 일정을 제시하고 농지 특별조치법안의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농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농지의 투기적 행태는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농지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상화·양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투명하게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 정비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가을철 산불 대응 전진기지 본격 가동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 개소
산불방지 대책본부 발대식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에서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 및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전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초동 진화를 위한 전진기지이자, 산불 진화 인력의 교육 및 휴식 공간인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지난달 30일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에서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 및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주시의원들이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하고, 산불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강병구 시 자원순환녹지국장과 임숙희 완산구청장, 강세권 덕진구청장 등 관계자와 산불 감시원·진화대원 등 170여 명은 함께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는 완산구 삼천동1가 4번지 일원 완산근린공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대응센터 1동과 산불장비 보관창고 1동 등 모두 2개 동, 542㎡ 규모로 지어졌다.

특히 센터 1층에는 산불진화차량 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 2층에는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상황실과 교육장 등이 들어서 골든타임 내 초동 진화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시 산림공원과(본부)와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 덕진구청 등 3곳에 상황실을 두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 기간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등 146명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산불 감시와 진화 대응에 나서게 된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산불대응센터는 전주 산불 대응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산불대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을철 철저한 현장 예방과 감시활동을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시민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부 추천인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인센티브 최고 30만원



전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기관, 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여형 모금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주愛 마음 더하기, 1+1 고향사랑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관내 거주자의 직접 기부가 제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관외 기부자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전방위적 모금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주시민과 전주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친지·지인에게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고 기부 참여를 추천한 뒤 추천 실적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통한 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3억 원이다.

이를 통해 전주시민이 전주시에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전주와 인연이 있는 관외 거주자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외 거주 가족·친지·지인에게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고 기부를 추천한 후 실적을 인증하면 된다. 인증은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서면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네이버 폼과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천인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추천을 통해 기부가 완료되면 추천인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기부금 납부 완료 순으로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단, 추천 실적은 추천받은 사람이 고향사랑e음 누리집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추천인 인센티브는 기부금 납부 완료 시각을 기준으로 집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추천 실적 상위 30명에게는 추천 기부금액의 5%를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1월~12월 연말정산 집중 모금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등 13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부스 설치 및 사내 게시판 알림 등 현장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로타리와 새마을회, 통장협의회, 전북도청사, 자율방범대, 주민협의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133개 시민단체 및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시 회의자료 게시 및 현장 홍보를 통해 관외지역 지인 홍보를 부탁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제10회 전주시 수어문화제 개최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수어공연과 체험부스로
농인과 비농인 함께 소통

수어를 통해 농인과 비농인이 소통하며 농문화를 함께 즐기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전주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이현석)는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제10회 전주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다.

'수어는 물듦이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수어문화제는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전주시 수어문화제는 수어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고,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수어발표회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수어 공연과 체험 부스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시민들이 직접 수어를 배우고 농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인과 비농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현석 전주시수어통역센터장은 "이번 문화제는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어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 청년들, 전주에서의 도전 이야기에 '풍덩'

청년포럼 '청년 로그인, 전주'
청년 40명과 도전·성장 공유

전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온 청년들이 후배 청년들에게 그동안 축적해 온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역 청년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포럼 '청년 로그인, 전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황큰별 ㈜텔로스 대표이사와 로컬 콘텐츠 '전주세끼'의 김정재 크리에이터, 오은하 음악감독 겸 작곡가 등 각자의 분야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3명이 패널로 참여해 도전과 성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1부 '먼저 해본 청년들의 이야기'에서는 패널들이 각자의 분야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시행착오, 성장 경험 등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특히 전주에서 활동하며 느낀 장점과 아쉬운 점 등을 공유하며 참여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2부에 참여한 청년들은 창업·문화예술·크리에이터 등 관심 분야별로 그룹을 나누어 패널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진로와 지역 활동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장에서는 오은하 피아니스트의 연주곡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황큰별 대표의 로봇개 시연이 펼쳐지는 등 패널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한 청년은 "전주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지대'를 보고 참석하게 됐다"며 "패널의 로봇개 시연과 음악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나도 전주에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청년들에게 전주에서도 다양한 도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외국인주민 축제 '와다다다 축제' 성황리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달 31일 전주기전대학교 강당 일원에서 전주지역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일반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하는 2026년 외국인주민 축제 '와다다다 축제'를 개최했다.

'와~ 다양한 구성원이 다함께 다 모이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와다다다' 축제는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큐브를 활용해 다양한 문구를 맞추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이벤트존과 게임존, 체험존, 플리마켓 등이 운영돼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중국 쑤저우시, 30년 우정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
문화·관광 협력 방안 모색

전주시와 중국 쑤저우시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우정을 되새기고, 문화·관광·청년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성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대표단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쑤저우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대표단은 특히 지난달 29일 쑤저우 현지에서 열린 '국제 자매도시 카니발'의 개막 선언에 참여해 두 도시의 깊은 우정을 재확인했다.

이어 쑤저우시가 주관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교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또 기념식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주시-쑤저우시 우호도시 음식행사'에서 조지훈 전주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전하며 오랜 자매도시로서의 굳건한 연대를 굳건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네스코 미식창의도시인 전주시와 중국 강남 미식의 전통을 지닌 쑤저우시 간의 풍성한 미식 교류가 이뤄졌다. 시는 기전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양종민 교수와 한지은 학생을 현지에 파견해 전주 대표 음식인 '비빔밥'과 한국 전통 병과인 '수수부꾸미'를 직접 시연하고 시식 행사를 열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30주년 방문을 계기로 기존 민간 중심 교류를 시 차원의 공식 교류로 한 단계 격상할 것을 쑤저우시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27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공식 초청 △양 도시 간 문화 시연 교류회 추진 △전주시-쑤저우시 청년 인턴십 교류 등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 도시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2027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든든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사회연대경제로 지역 상생협력 기반 강화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성료

전주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제12회 2026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유관기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기업의 판로 확대와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행사장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홍보·판매·체험부스와 유관기관 홍보관 등 총 45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체험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 전주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의체 등이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 참여기관들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과 관계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포럼과 기업 IR 발표대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시는 이번 박람회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자전거 타고 '제3금융중심지 유치' 염원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혁신도시 자전거 타는 날' 행사와 연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자전거 행사에 발맞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범시민적인 유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동 주민과 금융·공공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자전거에 '제3금융중심지 전북·전주 지정 촉구' 깃발을 달고 기지제 수변공원에서 농수산대 천변까지 약 5.5㎞ 구간을 달렸다.

참가자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염원을 알렸으며, 길게 이어진 자전거 행렬은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는 이번 캠페인 현장의 열기를 담은 자전거 라이딩 하이라이트 영상, 시민 인터뷰, OX 퀴즈 현장 등을 숏폼 및 카드뉴스로 제작해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모인 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온라인으로도 지속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혜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전북 광공업, 생산·출하 동반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는 1.4% 증가… 자동차·의약품 생산 ↑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동반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생산과 소비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8월에도 전년 동월보다 8.1%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9월 생산이 전월보다 9.4% 증가해 전월 대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2.0% 감소했고 음료는 39.7% 급감했다. 1차 금속 생산도 10.0% 줄어 전체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의약품 생산은 12.6% 증가했고 전기·가스·증기업은 5.3%, 자동차는 3.0% 늘어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광공업 출하도 전년 동월보다 2.7% 감소했다. 기계장비 출하가 15.7% 줄었으며 전기장비는 15.1%, 식료품은 4.2%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은 13.2%, 1차 금속은 12.4% 증가했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은 생산과 출하가 각각 22.0%, 15.7% 감소한 반면 재고는 22.4% 증가해 수급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광공업 재고는 전년 동월보다 18.0% 감소했다. 자동차 재고가 47.0% 줄었고 1차 금속은 21.1%, 식료품은 12.8% 감소했다. 반면 화학제품은 16.2%, 전기장비는 12.9% 증가했다.

생산과 출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소비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9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5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대형소매점 판매가 9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과 오락·취미·경기용품,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한 반면 신발·가방과 화장품은 감소했다.

다만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가 전북지역 전체 소비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는 추가적인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체 소매판매를 포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산업활동동향은 전북 제조업의 생산과 출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업종과 대형소매점 판매에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고령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신속 대응… 감사장 수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 솔내지점 이가온 계장이 고객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 덕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전북은행 솔내지점을 방문한 고령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가방을 끌어안은 채 주변 눈치를 살피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현금 1,400 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고객이 통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자 이 가온 계장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객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현금 인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 화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점에 비치된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를 함께 확인하며 고객을 안심시키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고객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세심하게 살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고객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금융 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장학금 기탁

지역 인재 육성 위해 6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장학후원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난달 28일 NH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이중배 원장과 NH농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후원금 600만원은 지역 내 우수 인재 발굴 및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에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밝힐 젊은 인재들에게 소중한 꿈과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며 책임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중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지역 인재 양성에 뜻을 모아 장학후원금을 선뜻 기탁해 주신 NH농협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NH농협은행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장학후원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

경쟁률 71대 1 내년부터 공식 활동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7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에서 7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20명이 홍보모델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2027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최종 결선을 개최하고 대상 1명을 비롯해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선발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00명의 홍보모델을 배출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1,430여 명이 지원해 7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카메라 테스트를 거쳐 최종 결선에 진출한 40여 명이 무대에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의 업종도 다양했다. 음식점과 카페, 꽃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방송작가, 유튜버, 성악가 등 프리랜서와 가구 제조업, 농업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최종 결선에서는 '나에게 노란우산이란 OOO이다'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노란우산 가입 경험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노란우산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평생의 노후지킴이' 등으로 표현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갖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어 노래와 춤, 연기, 악기 연주, 성대모사, 서커스 등 다양한 장기 경연이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4명, 장려상 10명 등 모두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돼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다.

대상은 러닝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런더풀의 안정은 대표에게 돌아갔다.

안 대표는 "달리기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멈추는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모델 20명은 2027년부터 TV 광고와 인쇄광고,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란우산을 알리는 공식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가입자가 직접 노란우산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새로운 홍보모델들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고창군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고창군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려운 고령 농가 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축산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위생,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등 축산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의무 교육으로 축산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 주요 내용은 축산관련 법령을 비롯해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개선, 가축방역 등 축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창군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읍·면 담당자 전화 독려,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12월 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미이수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유효진 축산과장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농가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말 내에 보수교육을 꼭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 저능력 한우 암소 도태 농가 지원

마리당 50만원

정읍시가 유전체 분석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우 암소를 도태한 농가에 마리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한우 개량과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총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해 '2026년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체 분석 자료를 활용해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의 도태를 유도하고, 우수 개체 중심의 번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한우 사육농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에 참여해 분석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암소를 보유한 농가다. 대상 개체는 60개월령 미만이어야 하며, 농가당 10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전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청은 연중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사진=정읍시>

장려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월까지 대상 암소의 도축이나 난소결찰을 완료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의 자발적인 도태와 우수 개체 중심의 번식을 통해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와 한우 품질 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한우 농가의 자발적인 개량 참여를 이끌어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축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쨈매 별빛 야(夜)시장' 첫 출발… 원도심 활력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잇는 야간 콘텐츠인 '쨈매 별빛 야(夜)시장'을 개최해 김제 원도심에 새로운 밤의 풍경을 선보였다.

김제전통시장부터 중앙시장까지 이어지는 행사장에는 먹거리와 무대공연을 비롯해 디저트·카페, 농산물·농식품, 사회연대경제, 체험과 굿즈 판매 등 7개 테마의 콘텐츠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주었다.

'쨈매 별빛 야(夜)시장'은 기존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를 넘어 시장과 원도심 곳곳을 연결해 시장 방문이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돼 먹고, 보고, 체험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야간 나들이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사업의 일환인 쨈매 별빛 야시장이 원도심에서 시작한 변화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김제만의 혁신모델로 발굴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 성장 기반 마련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가 2018년 개소 이후 청년창업 CEO 380명을 육성하고 누적 매출 537억 원, 신규 일자리 83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판로 확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현진)는 지난달 30일 전주향교에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제16기 입교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Youth Start-up Festival'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제16기 입교기업 42곳을 비롯해 김현진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 조지훈 전주시장, 장상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투자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기업들은 생명식품, 지식 소프트웨어, 기계재료,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저당 간편식과 인공지능(AI) 플랫폼, 고정밀 기술을 활용한 제품, 친환경 솔루션 등 기술력과 사업 아이디어를 접목한 시제품을 공개하며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중진공은 전주향교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 거점이라는 점을 활용해 일반적인 성과 전시를 넘어 실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판로 개척과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8년 개소 이후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판로 개척, 투자 연계, 후속 성장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청년창업 CEO 380명을 육성했으며, 육성기업들의 누적 매출은 537억 원,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은 830개로 집계됐다.

김현진 본부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청년 창업가들이 지난 200일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소중한 자리"라며 "현장에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이를 성과 창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교육청,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 방향 모색

'전북교육정책 포럼' 개최… AI·민주시민교육 대입제도 등 현안 논의


천호성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되짚어 보고, 미래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전환의 시대, 전북교육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해 학교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북교육의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정책과 연구,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요 교육 현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2일 열리는 1차 포럼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사회적 합의, 청소년의 우경화와 혐오 문제, 대입제도 및 평가혁신 등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과제를 논의한다.

한민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 사무국장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주제로 발표하고, 유대근 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이 '10대 우경화와 혐오의 토끼굴, 학교는 어떻게 출구를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학교의 역할을 짚어본다.

이어 주재술 울산과학기술원 전 입학팀장이 '대입제도와 평가혁신: 선발의 기술에서 성장의 기록으로'를 주제로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5일 열리는 2차 포럼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AI, 다문화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민주시민교육, 이제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이 'AI 시대,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전북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이제는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줘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이번 포럼이 학교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모녀의 하루 in 군산&서천' 운영

2일 오전 10시 선착순

군산시는 엄마와 딸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모녀의 하루 in 군산&서천 – 마음을 잇다 편'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군산의 대표 인기 여행 프로그램인 '모녀의 하루 in 군산'을 인근 충남 서천군과 연계해 1박 2일 동안 두 지역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산의 근대 문화와 레트로 감성, 서천의 청정 생태·자원을 아우르며 관광의 즐거움과 모녀 간의 정서적 교감을 더하는 체류형 힐링 여행으로 진행된다.

군산에서는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문화거리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추억의 교복을 입고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긴다.

서천에서는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5대 기후의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며 이색적인 생태 체험을 즐기고, 울창한 해송이 우거진 장항송림 산책과 장항스카이워크 관람을 통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여행 첫날 저녁에는 모녀가 함께 식사하며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모녀의 하루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편지 교환과 낭독, 시간을 담은 편지(1년 뒤 보내는 편지) 쓰기 등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신청은 2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공식 홍보 채널의 게시물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교육감 후보 낙선 목적 글 '일부 송치'

선거 기간 천호성 후보 비판… 선거운동 혐의 적용

지방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일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 게시판 등에 당시 천호성 교육감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비방성 글을 게시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올린 게시글 중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을 개진한 측면이 있고, 이 같은 의혹 제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식을 상습 도둑질한 자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들은 표절이나 컨닝을 죄책감 없이 하지 않겠냐"는 등의 비판 글을 잇달아 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성민 기자

남원시청 복싱팀 김정우, 전국체전 동메달

남원시청 복싱팀 김정우선수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남원 복싱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펼쳐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복싱 대표로 남원시청 소속 선수 3명이 출전해, 김정우 선수가 미들급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값진 성적을 거두었다.

2017년 남원시청 복싱팀에 입단한 김정우 선수는 2022년 국가대표 선발되는 등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팀의 맏형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후배 선수들을 이끌며 훈련과 경기에서 모범을 보여왔으며,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두며 남원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남원시청 복싱부 김정우 선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최정진 감독님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자기관리를 통해 기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원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교육청, 부패·비리 근절 위한 특별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인사청탁 및 계약비리 등 중대한 비위 의혹에 엄정 대응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렴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내외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신고 창구는 상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접수된 제보의 신빙성과 구체성, 증거자료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안별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과 관계자 면담, 증거 확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감사 대상은 △특혜 채용·부당 전보·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 △입찰 담합·수의계약 특혜 등 계약비리 등이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해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부안의 가을, 책과 음악으로 물들다

부안군문화재단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석정문학관 청구원 마당에서 2026 부안예술인(단체) 역량강화 '하이라이트' 성과공유회 '출판기념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하이라이트'사업을 통해 창작 활동을 이어온 부안 문학인들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책과 음악을 매개로 예술인과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 '하이라이트'는 문학 분야 창작 지원에 집중해 지역 문학인들의 작품이 창작에 머물지 않고 출간과 발표, 독자와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해 한 권의 책을 완성한 부안 문인 7명(김병석, 김해영, 김종수, 박향순, 서효석, 정기영, 홍근숙)이 직접 신간을 소개하고 작품을 낭독하며, 북마켓을 통해 독자들과 책에 담긴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지는 가을음악회에서는 석정문학관 청구원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공연이 펼쳐진다. 콘사노 체임버 오케스트라 유닛 피아노 트리오, 소프라노 박민주, 바리톤 류지상, 박종훈 콰르텟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클래식 성악과 실내악, 재즈 등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온스타 북 플리마켓의 신청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인간과 AI의 공존'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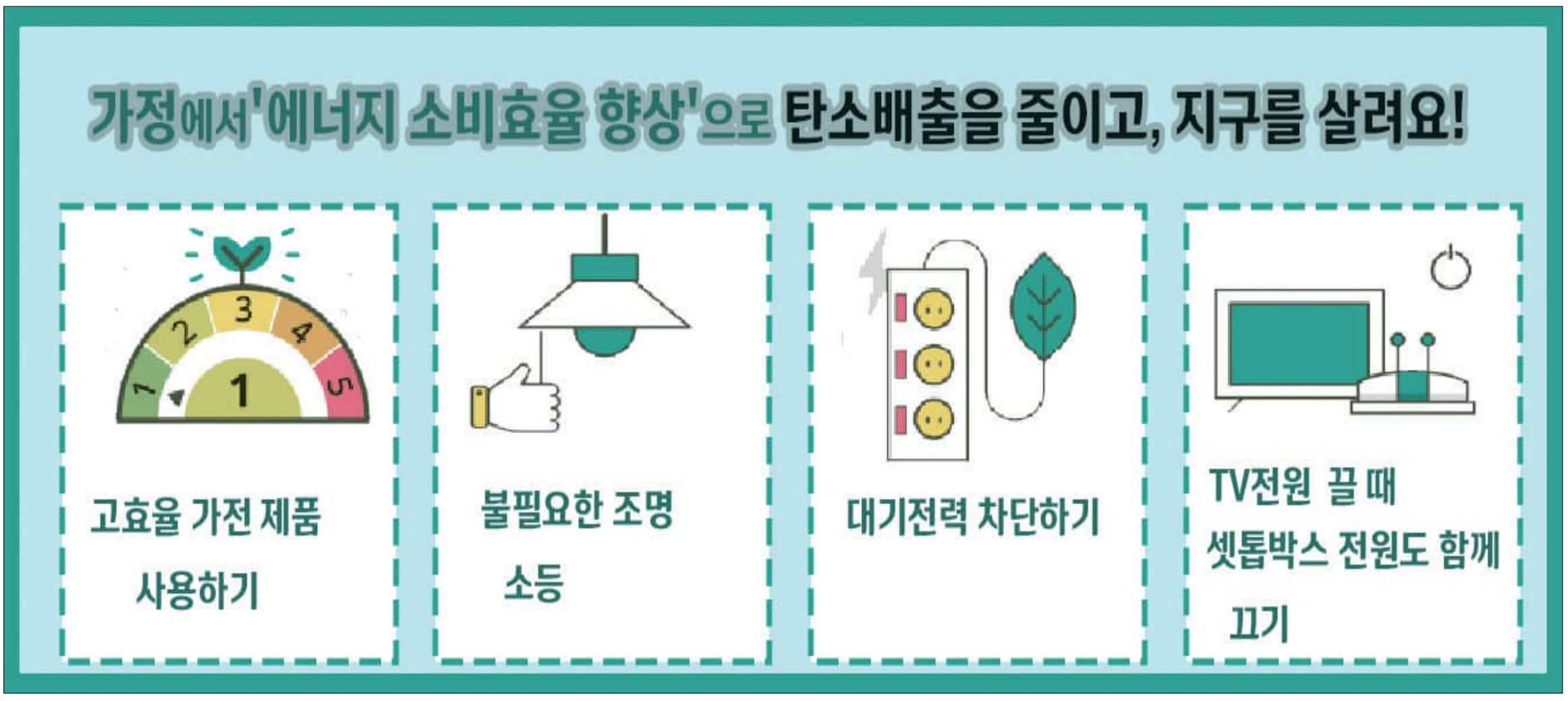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우수기획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W미술관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익산 W미술관에서 기획전시 '프로젝트 A.I.M. - 알파고 이후 10년, 캔버스 위 AI 예술실험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10년을 맞아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관계를 대결이 아닌 교감과 공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예술 창작에서 인간의 역할과 AI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예술인은 서양화가 김상태와 한국화가 이민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전승훈이다. 관람객은 작품과 AI 생성 이미지뿐 아니라 작가의 철학과 언어가 AI에 전달하는 지시문인 '프롬프트'를 거쳐 이미지로 구현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은 작품과 제작 과정을 함께 소개해 AI가 예술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는 W미술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204)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W미술관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백스테이지 투어' 운영

군산예술의전당이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무대 뒤편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백스테이지 투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공연장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올해 1월과 5월, 8월에 걸쳐 세 차례 시민 대상 '백스테이지 투어'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공연장 시설 소개 및 관람 예절 교육 △무대기계·조명·음향 시스템 시연 △분장실 등 무대 시설 투어 △시립예술단 연습실 견학 등 공연 제작 전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일반 관람객의 출입이 제한되는 분장실과 무대 대기 공간을 거쳐 실제 출연자의 동선으로 무대에 입장하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했다. 아울러 무대기계 시연을 통해 공연을 완성하는 기술적 요소를 살펴보고, 공연장의 숨은 역할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공연장에서 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올해 백스테이지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연예술을 친숙하게 접하고 공연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복지행정 전국 최고"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안전망 결실… 복지부 평가 '11년 연속' 우수



<사진=익산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온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무려 '11년 연속 우수지자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체계, 모니터링 관리의 적절성 등을 전문가 대면 심사로 종합 검증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특성을 섬세하게 반영한 특화 정책과 행정 전반의 높은 실행력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모바일 신고망인 '익산 주민(Zoom-in) 톡'을 가동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다져왔다.

아울러 정부 복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지는 '다이로움 밥차'와 긴급 위기 상황에 생계비 등을 즉시 지원하는 '익산형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타 지자체와 차별된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펼쳐왔다.

최영숙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은 "11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많은 이웃이 한마음으로 연대해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품어 안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빈틈없는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경건위, 동물 보호 강화

대전동물보호센터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지난달 29일 대전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대전의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시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대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살폈다.

또한 동물 보호 기능 강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식 경제건설위원장은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군산시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동물 보호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무공수훈자회 장진호전투 참전용사 추모

무공수훈자회 정읍시지회(회장 변용운) 회원 35명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장진호전투 추모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진호전투에서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과 유엔군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진호전투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졌다. 미 제1해병사단 등 유엔군과 국군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 약 12만명 규모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 철수한 전투다.

시 관계자는 "숭고한 보훈정신이 지역사회에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관외 고액체납자 밀착 징수

징수·공매 등 2억 2,000만 원 정리

군산시가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징수 활동을 펼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 고액 체납징수 T/F팀은 관외 고액체납자의 실거주 여부와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 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총 9차례에 걸쳐 현장 출장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4월 16일~5월 15일)에 재산세 등 10억 6,000만 원(684건)을 체납한 27명을, 하반기(9월 15일~10월 13일)에는 지방소득세 등 10억 2,000만 원(188건)을 체납한 24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관외 체납자는 거주지와 사업장이 타 지역에 있어 전화나 우편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는 소재 파악과 납부 여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현장을 직접 찾아 체납 원인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장 납부 및 사후 징수 3,300만 원 △공매를 통한 강제 정리 1,8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관외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은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단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전기차 보조금 공개 추첨

공정성·투명성 높였다

익산시는 이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개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결과에 따라 지원순번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선정 방식을 적용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보조금이 단기간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선착순 방식에 따른 조기 마감과 선정 과정 확인에 대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달 8일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처음 실시한 공개 추첨은 시민들이 선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해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신청자별 지원순번을 부여한 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차량 출고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지난달 14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 이후 신청 취소나 차량 미출고 등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에게 지원 기회가 돌아가도록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청년 창업가들이 선보이는 '익산의 맛'

7일 '디저트 페어' 개최 총 26개 부스 운영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개성 있는 디저트와 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청년시청에서 '익산 디저트 페어'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디저트 판매 부스 16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식품 판매 부스 10개 등 총 26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크리스마스 아이싱 쿠키 만들기'와 '나만의 블렌딩 차 만들기' 등 2개 체험 부스에서 디저트를 꾸미고 취향에 맞는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구매 혜택과 이벤트도 마련된다. 사전 구매 예약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사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꽝 없는 랜덤 뽑기'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사전 구매 예약은 온라인(litt.ly/2026iksandessertfair)으로 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전문 상담도 진행된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디저트를 즐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익산시>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지역특화형비자 취득자 고용 기업 맞춤 지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상생형 기업 지원 정책이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화합 연수(워크숍) 등 다채로운 친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기조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 실현과 관련한 맞춤형 정책이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 인력을 적극 채용해 지역 산업 현장을 지키는 모범 기업에 실질적인 복지와 화합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위제스'와 '임마누엘팜' 등 참여 기업에는 △한국 문화교류 체험 △친선 체육활동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내·외국인 근로자가 한 가족처럼 어우러질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됐다.

지난 8월부터 본격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내·외국인 직원들은 전통 떡메치기 등 한국 고유의 생활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일터를 벗어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향후 가을 체육행사와 사업 성과공유회를 차례로 열어 상생 모델을 더욱 탄탄히 다듬을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보건소 "화재 예방 철저히"

소방서와 합동훈련

정읍시보건소가 지난달 28일 보건소 청사에서 정읍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보건소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화재 발생 통보와 비상경보를 시작으로 대피 유도, 화재 진화,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까지 단계별로 대응 절차를 연습했다.

특히 노약자와 유아 등 취약계층 방문객이 많은 보건소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 유도와 초기 화재 진화에 중점을 뒀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많은 시민이 찾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만큼 평소 화재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훈련과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건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 발효식품, 상품성 인정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우수상품 선정

정읍의 발효식품 업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귀리귀인의 '1894혁명(마일드)'이 '202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농촌진흥청의 생쌀발효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다. 시는 발효기술을 활용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품질과 생산효율을 높인 점이 상품성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 발효식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시비 1750만원을 들여 업체 7곳의 전시 공간 임차비를 지원했다. 참가 업체들은 상생식품관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정읍 발효식품'을 함께 알렸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다. 20개국 35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공간은 400개 규모로 운영됐다.

정읍에서는 귀리귀인을 비롯해 한국술도가, 한스올가닉, 마미팜엄니농원, 태산명차 영농조합법인, 한국식품, 미당이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와 발효식초, 청국장, 발효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시는 이번 선정을 국가 연구기관의 발효기술이 지역 업체의 제조 현장에 접목돼 상품 경쟁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참가 업체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소비자 반응과 식품 소비 경향(트렌드), 유통시장 흐름을 제품 개선과 판로 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용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우수상품 선정은 업체의 노력과 기술력이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정읍 발효식품이 더 넓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홍보, 판로 확대까지 꾸준히 돕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11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성료'

군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린 '2026년 제11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주관한 이번 영화제는 '제11막: 나란히 걷는 시선, 새로운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행사 기간 은파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하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편견과 차별을 돌아보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화라는 친숙한 영상 매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문제를 시민의 일상과 연결해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관심과 실천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 속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공약이행 '착착' 2(題)

첫 공약 '군민지원금' 지급 완료

고창군은 '2026년 군민활력지원금'이 높은 지급률과 소비 실적을 기록하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군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군민활력지원금 신청·지급을 완료했다.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이번 사업은 총 151억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지급대상 5만 415명 중 4만 9,643여명에게 지급해 98.5%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지급 이후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지급 후 약 두 달 만에 사용률 87.5%를 기록했으며, 마트·슈퍼마켓, 음식점·카페,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줬다.

고창군은 지원금 사용처를 관내 가맹점으로 제한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군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민선9기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며 "연말까지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서 활발히 사용돼 소상공인과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민선9기 고창군 공약이행평가단이 지난달 30일 위촉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고창군은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공약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총 30명을 모집·선발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은 민선 9기 4년간 함께 활동한다.

위촉된 평가단 30명은 군민의 대표로서 공약에 대한 평가와 관련사업 추진상황 점검, 군정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공약사업 실천 계획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고창군은 이날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참석해주신 공약이행평가단 분들께 감사하다"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더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발도 뛰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수의 공약은 5대분야 20대전략 80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약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심덕섭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행된 네 차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공약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입체로 본 조선의 풍경' 전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서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입체로 본 조선의 풍경'을 주제로 스테레오뷰 입체경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대 초 사진 기술과 이를 통해 바라본 조선의 농촌과 일상을 소개한다.

스테레오뷰 입체경은 평면 사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접이식 손잡이를 잡고 들여다보는 구조이다. 본체에는 사진을 고정하는 일자형 받침대가 있어 앞뒤로 움직이며 초점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진이 처음 소개된 개항기 무렵,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물과 풍경을 담은 스테레오 사진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시에 소개되는 사진은 '모내기를 위한 논 준비', '서울 근교의 쟁기질 풍경', '서울 거리에서 콩을 가는 모습' 등 당시 농업과 일상의 장면을 생생히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사진 기술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을 제시하며, 기록 매체로서 사진의 역할을 되새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스테레오 사진은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던 매체"라며 "입체경을 통해 조선의 풍경을 색다르게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성료

부안군립도서관은 지난달 28일 현장 탐방을 끝으로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은 '시간의 흔적을 따라…'를 주제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누적 2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해 부안의 역사와 불교미술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길 위에서 만나는 부안의 시간'에서는 공간을 통해 부안의 역사를 살펴봤다.

지역의 공간이 단순한 장소를 넘어 시대의 흔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며 익숙했던 부안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어 2부 '한국 불교미술과 부안의 사찰문화'에서는 한국 불교미술의 시작과 전개 과정부터 부안 불교미술의 특징까지 폭넓게 살펴봤다.

사찰 곳곳에 담긴 조형적 요소와 상징의 의미를 알아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 숨겨진 뜻과 이야기를 이해하며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복합 위기 가구 선제적 지원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부안군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주거, 고용, 의료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빈곤,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전문 복지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왔다.

실제 군은 최근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40대 주민 A씨 가구를 발굴해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대상자는 오랜 기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심각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모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군은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개입에 나섰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긴밀히 연계해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그 결과 가족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원비를 확보함으로써 집중 치료 환경을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민·관이 협력해 복합 위기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연계해 개인의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까지 지켜낸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폭설 대비 교통소통대책 훈련

실전 대응 점검

고창군은 지난달 29일 제설전진기지와 국지도 15호선 양고살재 방향 구간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교통소통대책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해 제설작업과 상황 신고, 차량 견인으로 이어지는 대응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민간 견인업체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도로보수원, 견인업체가 참여했으며, 제설전진기지에서 제설차량이 출동해 제설작업을 시연한 뒤, 고립차량을 발견하고 상황을 신고해 견인차량으로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고립차량의 위치와 교통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견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연락과 지원절차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창군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보완사항을 겨울철 제설대책에 반영하고, 제설장비와 자재를 점검하고 취약구간 예찰을 강화해 대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도의원과 예산 확보 '총력'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13개 주요 현안사업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역 도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도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김영식 부군수와 김성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도비 최대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고창군의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창군은 총사업비 1,360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 13건에 대해 도비 반영을 건의하고, 사업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사업(125억원)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450억원)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51억 원)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50억원) 등으로, 신규사업의 예산 반영과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 확보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2027년 도비 최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김제시는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 총 93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해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위생상태 등 26개에 달하는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항목표의 득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90점 이상은 녹색등급(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황색등급(우수),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일반)을 부여하고, 최근 2년 기간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평가항목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에서 제외돼 평가결과 숙박업 15개소, 목욕장업 1개소, 세탁업 7개소가 녹색등급(최우수) 업소로 선정됐다.

추후 업종별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10% 범위 내에서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공해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관리를 장려하고 평가 결과 점수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평선대학 졸업식 치유농업 전문가로 '우뚝'

김제시는 지난달 29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김제시지평선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지평선대학은 지역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농촌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복숭아반과 치유농업반 2개 과정을 편성해 총 93명(복숭아반 39명, 치유농업반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각 과정은 23회 100시간(2개 과정 총 46회 200시간)으로 운영됐으며, 전문이론 → 실습 → 현장견학·체험 → 농업현장 적용의 단계별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진행했다. 이 과정을 마친 69명이 이번에 명예로운 졸업을 했다.

김제지평선대학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2기수 38개 과정을 진행해 1,78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치유농업반의 김인숙씨가 농촌진흥청장상, 복숭아반 김형수씨와 치유농업반고수정씨가 김제시장상, 복숭아반 추민영씨가 김제시의장상을 수상했고, 17명 개근상을 69명이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평선대학이 농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성황

산업의 미래와 시민 체험 한자리에

김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김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린 '제4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했으며 '피지컬 AI가 바꿀 특장산업의 내일'을 주제로, 특장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산업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성과로는 특장산업과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기반 마련이 꼽힌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사)한국특장차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는 '미래 모빌리티 특장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융합기술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판로 개척과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

시민들이 특장산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차, 소방차, 자율주행차, 국방차량 등 특장차량 43대 전시와 37개의 홍보·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방문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장차를 살펴보며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특장차가 수행하는 역할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김제 특장산업의 역량을 알리고, 피지컬 AI와 연계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특장산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축산시설 23개소 사전점검

부안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산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재해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사 지붕 및 기둥 상태 점검, 난방 및 제설 장비 점검, 전기설비 및 소화기 등 화재 안전 점검 등으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며 피해 사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안내·지도했다.

군은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축산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축산농가가 겨울철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식품산업硏, 국제학술대회서 농특산자원 활용 연구 성과발표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연구원은 땅콩새싹의 추출 조건에 따른 항산화 활성 및 폴리페놀 함량 특성을 비롯해 무와 무청의 숙취 해소 관련 비임상 연구, 고구마 잎·줄기 부산물의 수용성 식이섬유화를 위한 전처리 연구 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농산 부산물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식품 원료의 기능적 특성을 탐색하는 한편, 발효기술을 접목해 식품의 영양적 가치와 풍미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농산 부산물의 식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농수산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박생기 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식품자원의 기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가공기술 연구를 통해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역 복지·돌봄 안전망 촘촘히 2(題)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전국 '최우수'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5기(2023~2026년)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 결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의 중심에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민관협력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행정과 시민, 복지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의 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 수립부터 사업 추진, 이행점검과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노력이 전국 최우수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남원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돌봄, 건강, 교통,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 행복미소 치아 지원, 120민원봉사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지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민 모니터링단,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별 이행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무엇보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과 복지 현장,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지역사회보장체계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예수병원과 의료·돌봄 연계 강화

완주군이 최근 예수병원과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와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예수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퇴원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및 지속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도 예수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숙 경로장애인과장은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수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고향사랑 답례품 확대…벌초 대행 '눈길'

신규 19종 선정…총 91개 품목 생활밀착서비스까지 다변화

완주군이 2027년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19종을 선정하고, 답례품 다양화를 통한 기부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을 고루 발굴해 2027년도 답례품 규모를 총 46개 업체, 9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답례품은 농축산물·가공식품 15종, 공예품 3종, 기타 서비스 1종 등 총 19종으로, 지역의 특색과 상품성을 고려해 품목을 다양화했다.

농축산물·가공식품 분야에는 백미, 돼지고기, 누룩소금·된장, 단호박·전통식혜 등 지역 농·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가 포함됐다.

공예품 분야에서는 등용문 향어키링과 다반 등 지역 업체의 개성을 담은 제품 3종이 선정됐다.

특히 완주군산림조합의 벌초대행 서비스 할인권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기존 농특산물 중심의 답례품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혔다.

군은 이번 신규 답례품 선정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업체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의 특색을 담은 우수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왕정동 도요지 조선백자 가마터 현장 공개

조선 왕실 공납용 백자 가마터 확인 지방가마서 드문 갑번요 구조 발견

남원시는 (재)고고문화유산연구원과 남원 왕정동 도요지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 및 학계 연구자들이 직접 발굴현장과 출토유물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개 행사를 지난달 30일에 가졌다.

이번 발굴조사는 2024년부터 진행해 온 왕정동 도요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에서 조사된 도요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남원시 관계자와 발굴조사팀이 직접 안내에 나서 현재까지 조사 성과를 설명했다.



<사진=남원시>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 전기 가마터 11기, 폐기장 6기, 수혈 6기 등이 확인되었다. 가마의 구조는 모두 반지하식의 무기단식 등요로 갑발이 정연하게 4열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 갑번요(匣燔窯)가 확인됐다. *갑번요 - 갑발(匣鉢)이라는 용기 안에 자기를 넣어 굽는 가마

갑번요는 최고급 자기를 생산하기 위한 구조로, 지방가마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이에 따라 왕정동 도요지는 조선 전기 왕실 공납용 최고급 백자를 생산했던 지방 가마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분청사기, 백자편 소량과 갑발, 도지미 등이 확인됐으며, 가마 구조와 유물을 종합하면 이곳의 주요 가마 운영 시기는 15세기 초·중엽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학술조사를 지속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유산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11개 읍·면 특색 담은 떡볶이 한자리에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메뉴 시연회 고추장·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 선봬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11개 읍·면에서 개발한 떡볶이 메뉴를 선보이는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고추장을 활용해 한국인의 대표 간식인 떡볶이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지역 특산물과 K-푸드를 접목한 먹거리 축제로 마련된다.

재단은 축제 개막을 앞두고 현장에서 판매할 떡볶이 메뉴의 맛과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시연회를 마련했다. 시연회에서는 11개 읍·면 주민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떡볶이를 현장에서 조리해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은 각 메뉴를 시식하며 맛과 조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장류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떡볶이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각 읍·면의 특색을 담은 메뉴들이 다양하게 선보이며 순창만의 차별화된 먹거리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의 입맛을 고려한 로제 떡볶이와 카레 떡볶이,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강정 떡볶이 등 개성 있는 메뉴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재단은 이번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메뉴의 맛과 완성도를 보완하고, 방문객들이 다양한 떡볶이를 즐길 수 있도록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전직 군수들, 지역인재 육성 뜻 모아


황숙주 前 군수


강인형 前 군수

순창군은 황숙주·강인형 전 순창군수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달 29일 (재)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에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황숙주 전 군수는 순창군 동계면 출신으로 감사원 감찰관과 특별조사국장, 행정안보감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선 5·6·7기 순창군수를 지냈다. 올해 팔순을 맞은 황 전 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강인형 전 군수는 순창군 풍산면 출신으로 전라북도 공보관과 내무국장, 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관 등을 거쳐 민선 3·4·5기 순창군수를 지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간 옥천인재숙 원장으로 재임하며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원했다. 군정과 교육 현장에서 이어온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을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도 이어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탁해 주신 소중한 마음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사진=남원시>

남원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나눔으로 환원

남원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관내 취약계층에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적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를 추진했으며, 관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원 물품은 화장지, 세제, 우양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7종으로, 관내 6개소 읍면동의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 가구의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온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과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현장 방문…사업성 검토

남원시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분과별 제안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위원회는 분과별 일정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제안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주변 여건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사항과 위원들의 의견은 향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현장 확인 결과와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도 예산편성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의 사각지대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체감도 높은 맞춤형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서, 청소년 신종범죄 예방 체험형 교육 선봬

완주경찰서(서장 손광혁)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과 마약 등 신종 범죄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현장 밀착형 체험 교육'을 선보였다.

완주경찰서는 삼례읍 '완주 창의예술 미래공간 꿈이공'에서 열린 완주교육한마당 현장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스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청소년 사이버도박, 마약,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청소년 눈높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참가자들에게 테이저건, 수갑, 삼단봉 등 실제 경찰 장비의 사용법과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동시에 시각 자료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과 피싱 범죄의 구체적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전달했다.

현장에서 부스를 체험한 한 학생은 "평소 미디어에서만 보던 경찰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경찰관 업무를 이해하게 됐고, 무엇보다 모바일로 쉽게 접하는 사이버도박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실감했다"고 전했다.

손광혁 완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종 청소년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3일부터 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순창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과일가게, 귀금속판매소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구체적으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단,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중인 저울 등도 제외된다.

검사는 3일 순창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전북 적십자 봉사원 1200명 남원서 화합·나눔 다짐

전북 지역 봉사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적십자 봉사원 대회가 지난달 29일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 내 각지에서 모인 봉사원 1,200여 명을 비롯해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장은 보이지 않는곳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봉사원들의 열기와 화합의 분위기로 가득 차올랐다.

이날 행사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나눔을 실천해온 우수 봉사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봉사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 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삭한 봉사원들은 서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행사 주최 주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1,200여명 봉사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봉사원 대회를 계기로 전북 지역 내 나눔과 봉사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산면,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체험교육

완주군 고산면이 최근 고산향경로당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완주군어린이안전교육종합체험관(관장 신다경)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고령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보행 문화를 확산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어르신 교통사고 빈발 유형에 따른 안전 보행 수칙과 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 등 필수 이론 교육을 전달하고, 전문 실습 장비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체험을 제공했다.

특히 실생활에 유용한 모형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 실습과 안전 의지를 다지는 '안전 배지 만들기' 활동을 함께 구성해 참여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혜숙 고산면장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올바른 보행 습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2027년 농군사관학교 교육생 120명 모집

장수군은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7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교육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실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 전문 농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팜 토마토 중급 △스마트팜 토마토 심화 △장수사과 마이스터 양성 총 3개 과정으로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스마트팜 토마토 중급·심화 과정은 각각 30명을 모집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개별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교육생들의 재배기술 이해도와 영농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새롭게 개설하는 장수사과 마이스터 양성 과정은 교육생 60명을 모집한다.

수형 관리와 다축수형 등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진행해 장수사과 재배기술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 거주자로,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11월 27일까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은 과정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4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관광인재 육성 '마이 아카데미' 3기 문 연다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지역 관광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관계자 간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 진안관광 상생설계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진안 관광인재 육성 프로젝트인 '마이 아카데미' 3기 과정으로, 기존 1·2기 교육과의 연속성을 살리고 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 관광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4차시로 진행되며, 관광사업자와 지역 유관기관·조직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기획, 온라인 판매 채널 및 OTA 입점 실무, 협업 실행계획 수립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교육과 함께 기존 교육생 및 지역 관광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해 지역 관광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11월 10일까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구글폼으로 가능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동절기 운영시간 조정

임실군은 동절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붕어섬 출렁다리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해 운영한다.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평일에 휴장한다.

이에 따라 붕어섬 출렁다리 이용객은 변경된 운영시간을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하며, 특히 입장 마감시간은 운영 종료 1시간 전인 16시로 오후 늦은 시간대 방문객은 입장 및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동절기 일조시간 감소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임실군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관광객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동

한득수 군수 1호공약 실행 생활안정·경제 활성화 기대

임실군이 한득수 군수의 민선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달 29일 1차로 군민 1만 9,650명에게 총 58억원 규모의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임실군 주민등록인구 2만 5,308명의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로 군민 대다수가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첫 지급은 민선9기 군민에게 내건 첫 번째 약속이 계획을 넘어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과제앞에서, 군민 누구나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임실'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급된 자금이 지역안에서 소비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로 한정해, 혜택이 동네상점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했다.

사용기한은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내 사용하지않은 금액은 자동반납된다.

정해진 기간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해 지역경제 순환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군은 군민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안에서 다시 소비되고, 그 소비가 소상공인의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사용지역과 일부 업종의 사용한도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소비가 고르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준공

청년·신혼부부·농촌 유학생 등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

장수군은 지난달 29일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광장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참샘골 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문재표 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입주 예정자, 인근 학교 관계자와 학생,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준공식은 강복기 민원과장의 사업 추진경과 보고, 내빈 축사,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식 순서로 뜻깊게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한 '참샘골 행복주택'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59억 원이 들어갔다. 주택은 지상 4층으로 전용면적 35㎡, 45㎡, 55㎡의 총 18가구 규모다.



장수군은 지난달 29일 청년과 신혼부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참샘골 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한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장수군 행복주택 1호이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장수에 터전을 잡기 어려웠던 청년층과 신혼부부, 농촌 유학생, 귀농귀촌인 등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저렴한 임대료와 청년층 등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됐다.

장수군은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근 지역 청년층 및 농촌 유학생 등의 유입을 유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제18회 눌인 김환태 문학제 성료

손정수 문학평론가 제37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

제18회 눌인 김환태 문학제가 지난달 31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주관, (재)설악만해사상선양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이봉명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장, 오형엽 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 등 1백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제37회 김환태평론문학상 및 제8회 청소년문학상 시상,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학술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봉명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장은 "김환태 선생이 도전했던 문학의 과제는 정체에 예속되는 경향문학의 배격이었으며 친일문학 일색으로 변모되는 우리 무학의 보호였다"라며 "앞으로 문학계를 더 뜻깊고 알차게 준비해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는 "문학비평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평론가이자 문학을 통해 인간과 삶의 본질을 바라보고자 했던 우리 문학의 자산이 바로 김환태 선생"이라며 "선생의 문학 정신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반을 든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37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의 영예는 문학평론가 손정수 교수(계명대)가 "소설, 밤의 학교(2025)"로 안았다.

심사 위원들은 작품에 대한 섣부른 판단보다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비평가의 태도가 돋보인다면서 서로 다른 세대와 개성을 지닌 작가들이 손정수 평론가의 치밀한 독해 속에서 각자의 면모를 새롭게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작품을 섬세하게 읽는 일과 한국 소설이 현실과 역사에 반응해 온 큰 흐름을 살피는 일이 이 책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빈집재생사업 2차 입주자 선정

평균 경쟁률 4.75대 1

진안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모집 결과, 농촌유학가족 2세대와 귀촌인 2세대, 총 4세대 10명을 입주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총 19세대가 신청해 평균 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마령면은 1세대 모집에 6세대가 신청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진안군은 올해 빈집 10동을 정비해 총 10세대 23명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 자가주거형 빈집재생사업을 처음 도입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했다.



내년에도 빈집 철거 후 모듈러주택 신축을 지원하는 '진안형 빈집철거 모듈러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 정비와 주거공간 확충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종교 편향 없는 공정 행정 다진다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강당에서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정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종교차별 금지 의무를 되새기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종교학 분야 전문가인 배재대학교 안신 교수가 강사로 나서 '종교와 과학(왜 인간은 종교를 믿을까?)'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안 교수는 인류 문화 속 종교의 기원과 본질을 짚어보는 동시에,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객관적 태도와 종교적 편향 없는 공정한 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다뤄 직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제356회 임시회 마무리

군정질문 및 40건의 안건 처리

임실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군정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의원 발의 8건과 군수 제출 32건 등 총 40건의 의안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안건별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1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2건은 부결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나섰다. 임실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일윤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는 군정질문을 비롯해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았음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제안된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이 군정 운영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5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성료

청소년 주도형 축제로 열려 호평

'제15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D-Day: Dream Day)'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청소년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이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들의 꿈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부 체험·먹거리 부스에는 14개의 청소년 동아리와 전문 강사, 관계 기관이 참여했으며, 청소년 디저트 동아리 '꾸까(샌드위치 만들기)', 바리스타 동아리 '바리스타의 꿈(음료 나눔)' 등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한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퀴즈·스트레스 해소)와 무주노인종합복지관(노인 인식 개선 캠페인),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섬유·자개·커피박 공예 체험),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먹거리 부스) 등도 참여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무주청소년수련관 이태석홀에서 열린 2부 '쌍백합청소년문화제'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이 춤과 밴드, 노래 등의 기량을 펼치며 관심을 모았다.

각 행사에는 무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무주군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한 설천중학교, 무주고등학교,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 안내와 진행을 도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두마리목장, 국제발효식품엑스포서 '대상'



임실군은 관내 농업경영체인 두마리목장(대표 심요섭)이 '제2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IFFE 지정 우수상품(제품명: 두마리목장 블루베리 가득 요거트 파우치)으로 선정되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제2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외 우수 발효식품을 소개하고 농식품기업의 판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IFFE 지정 우수상품은 엑스포 참가기업의 식품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일반소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품의 색, 향, 맛, 질감 등 관능적 특성과 품질 신뢰성, 시장성, 포장 상태, 발효·전통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두마리목장의 이번 수상은 지역 농식품의 품질과 상품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임실군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상제품은 향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완주 스마일화산 바자회 수익금으로 찹쌀 기탁

완주군 사회적협동조합 스마일화산이 지난달 27일 연 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찹쌀(4kg) 50포를 마련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기탁한 찹쌀은 조합원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일군 바자회 결실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조승자 스마일화산 이사장은 "바자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번 기부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미정 화산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흔쾌히 기부해 주신 사회적협동조합 스마일화산 이사장님과 조합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해 주신 소중한 찹쌀은 도움이 절실한 관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게 정성을 담아 잘 전달하여, 훈훈한 온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금호로지스, 사랑의 헌혈 캠페인 동참

임직원 자발적 참여 혈액 수급난 해소 앞장

군산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인 ㈜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가 지난달 30일 헌혈의 집 군산센터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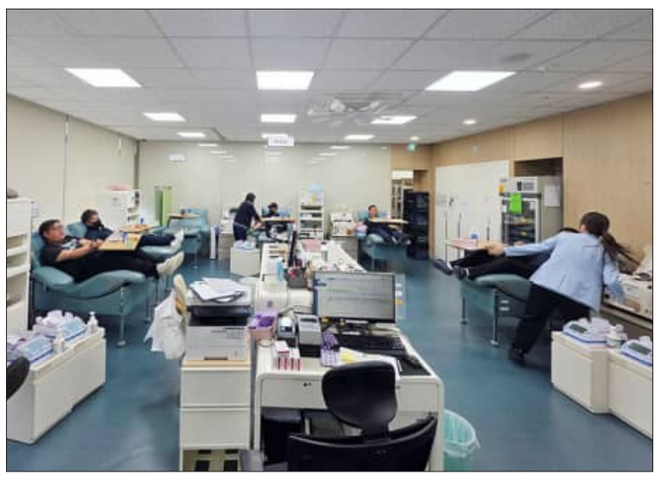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나눔의 뜻을 모았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헌혈 참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지태 대표이사는 "바쁜 업무 중에도 헌혈에 기꺼이 참여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로지스는 매년 헌혈 참여뿐만 아니라 연탄 봉사,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인 ㈜금호로지스가 지난달 30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군산시>



고창 공음면 학원농장·넓은들 겉보리쌀 1600포 전달

고창군 공음면이 학원농장(대표 오형준), 농업회사법인 넓은들(주)(대표 진수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560만원 상당의 겉보리쌀 1,600포(500g/1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제23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열린 공음면 학원농장(15만평) 일원에서 축제 이후 수확한 겉보리쌀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겉보리쌀은 공음면 관내 51개소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해질 예정이다.

오형준 학원농장 대표와 진수연 농업회사법인 넓은들(주) 대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열린 축제의 결실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서진선 씨, IT 경진대회 지체장애인 부문 금상

전북에서 유일한 수상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서진선 씨가 '2026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지체장애인 부문에서 금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을 받았다.

복지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식 수상자 발표에서 서 씨의 금상 수상이 확정됐다. 서 씨는 이번 대회 전체 수상자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한 수상자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관 했다.

서 씨는 "복지관에서 배우고 꾸준히 연습한 노력이 금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회를 준비하며 선생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고, 이번 수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신동 주민들 이웃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익산시 신동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 축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신동은 '제2회 신동 어울림한마당'의 바자회 수익금 186만 원 전액이 지역 저소득층 50가구를 위한 김치 구입에 사용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주민들이 직접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2회 신동 어울림한마당'은 신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신동발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 신동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새말아띠자원봉사단 등 지역 단체들이 함께 준비했다.

각 단체 회원들은 냄비와 화장지,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기부받은 물품은 행사장에 마련된 알뜰 바자회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됐으며, 수익금 전액이 이번 김치 나눔에 사용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 찾은 청년들 마을회관 불편 살피고 수리 봉사

귀농·귀촌을 꿈꾸며 진안을 찾은 청년들이 마을회관 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덜고 있다.

진안군귀농귀촌센터는 청년캠프 '청년다방' 참가자 4명과 함께 마을회관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신청 마을을 찾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을 살피고, 방충망과 전등 교체, 멀티탭 정비, 출입문과 발판 페인트칠 등 필요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9월 22일부터 마을회관 수리 신청을 받아 21개 마을의 요청을 접수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했으며, 현재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진안의 생활 여건을 알아가고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한국해상풍력, 부안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지난 3월에 이어 추가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한국해상풍력(주)(대표 위진)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상풍력은 2024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부안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꾸준히 응원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에 이어 500만원을 추가로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인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위진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부안의 미래를 위한 나눔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 한우 불고기 기부

김제시는 지난달 30일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지부장 좌승훈)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323만 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 73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한우 정육을 기탁해 왔으며,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한우 불고기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으로, 영양가 높은 한우를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온정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좌승훈 지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一事一言〉



반성문은 한동훈에게, 독설은 대통령에게

곽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의 임기를 입에 올렸다.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이유 하나로 박근혜와 윤석열의 이름을 끌어왔다. 국정을 농단해 파면된 대통령, 군을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다 쫓겨난 대통령. 그 둘과 국민이 선거로 세운 대통령을 한 줄에 세웠다. 평론가의 혀가 이 정도로 무뎌졌다면 칼을 놓을 때가 됐다.

지지율로 대통령의 자격을 따지는 일이 얼마나 천박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시민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 언론이 지지율 숫자로 대통령을 조리돌림할 때 그는 그 숫자 놀음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다. 그 시절 자신을 향했던 화살을 이제 그가 직접 쏜다. 조선일보 사설과 무엇이 다른가. 지면이 유튜브라는 것뿐이다.

딱정벌레와 돌고래 이야기는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 집을 허무는 벌레에 빗댔다. 모래밭에 떼로 몰려가 죽는 돌고래에 빗댔다. 파브르를 들먹이며 고상한 척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대통령을 곤충으로 그리는 순간, 그에게 표를 준 수백만 국민은 벌레를 뽑은 사람들이 된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아니라 유권자를 조롱했다.

진영을 해체했다고 한다. 그 진영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몇몇 원로의 인맥도, 특정 계파의 족보도 아니었다. 계엄의 밤 맨몸으로 국회 앞에 섰던 시민들이었다. 유시민이 말하는 진영이란 자신이 훈수 두고 서열을 매기던 좁은 마당이다. 해체된 것은 진영이 아니라 유시민의 지분이다.

김민석 대표를 향한 공격에서 속내가 드러난다. 비주류에 표를 던진 46%의 당원이 훌륭했다고 했다. 그럼 나머지 당원은 어리석었다는 말인가. 당원들이 다시 주권을 행사할 날이 올 거라는 말까지 보탰다. 경선은 끝났다. 승복 대신 다음 판을 예고하는 것, 선거에 지면 결과를 부정하던 이들을 우리는 질리도록 봤다.

그러고는 조국혁신당을 구명정이라 불렀다. 배가 가라앉는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구명정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경보가 아니라 탈출 안내 방송이다.

홍위병이라는 말은 저열하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문화대혁명의 폭도에 갖다 붙였다. 자기 편일 때는 깨어 있는 시민이고, 등을 돌리면 홍위병인가.

그런데 이 대담한 입이 한동훈 앞에서는 얌전하다. 이유가 있다. 2021년 1월, 그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동훈을 겨냥해 1년 넘게 퍼뜨린 의혹이었다. 그 사과문에서 그는 앞으로 정치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 권력 앞에서는 반성문을 쓰고 붓을 꺾겠다던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앞에서는 벌레와 돌고래를 꺼내 든다. 강한 자 앞에서 엎드리고 제 편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겁이라 부른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에 나서지 않으니 심판받을 일이 없고, 직책이 없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수명을 점치고 당대표 교체를 예고하고 지지자를 홍위병으로 본다. 권력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그것은 특권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지금 누구의 귀에 가장 달콤하겠는가. 내란 세력의 잔당이다. 유시민은 그들이 하고 싶던 말을 민주진보의 얼굴로 대신 해줬다.

배가 역류를 만났으면 노를 잡으면 된다. 노를 잡을 생각이 없다면 조용히 내리면 된다. 갑판 위에서 침몰을 예언하며 구명정을 가리키는 사람은 선원이 아니다. 유시민은 이제 그 배에서 내려오라.

사 설

외국인 유치 실적에 매몰된 전북, 정착 없는 인구정책은 공허하다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숫자보다 정착과 사회통합 성과 따져야

전북의 외국인주민이 8만 명에 육박했지만 외국인정책은 여전히 유치 실적을 앞세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 공을 들이면서도 이들이 지역에 얼마나 남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람을 데려오는 데 집중하고 정작 머물 수 있는 기반 마련에는 소홀한 정책으로는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도내 외국인주민은 7만9,224명으로 2015년보다 83.6%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4.5%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주민 증가가 곧 지역의 정주인구 확대나 인구구조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학생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종료와 함께 이탈한다면 유치 실적은 일시적인 숫자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치와 정착을 연결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유학생 모집에, 기업은 부족한 인력 확보에, 지자체는 유치 인원 확대에 각각 집중하는 구조에서 정작 취업과 주거, 가족생활을 책임지는 연계체계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을 인구 감소를 메우는 수단이나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접근부터 바꿔야 한다.

전북도는 외국인정책의 성과를 유치 인원과 사업 건수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학생의 도내 취업률과 취업 유지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전환, 지역 정착률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성과지표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회통합도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주거와 의료 접근성, 자녀 교육 문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결된다. 기존 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한다.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유치 목표가 아니다. 이미 전북에 들어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외국인정책의 우선순위를 정착과 사회통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그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착 없는 유치는 숫자만 남길 뿐이다.

▲ 오늘의 시

산 하나를 방석 삼아 / 이 정 록

단풍나무 아래에
돼지머리가 버려져 있다
돼지는 일생을
서 있거나 누워서 지낸다
앉아 있을 경우는, 오직
새끼를 낳는 암놈이
앞발만 세우고 비척거릴 때다
돼지머리는
제대로 한번 앉아보려고
목덜미 아래를 버린 것 같다
선지피는
단풍잎이 다 들이마셨나
도끼가 지나간 자리로
산 하나를 꿰차고 있다
잘린 목으로
일찍 떨어진 낙엽을
어루만지고 있다

시인 약력 : 1964년 충남 홍성 출생. 공주사범대학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198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시 '농부일기'가,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혈거시대'가 당선돼 등단했다. '김수영문학상', '김달진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등의 상을 수상했고 현재 만해문예학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벌레의 집은 아늑하다', '풋사과의 주름살', '아버지학교'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 독자투고 |

황금빛 결실의 계절, 농기계 안전으로 풍년을 완성하자



지평선 너머로 황금빛 벼 물결이 일렁이는 10월, 김제의 들녘은 한 해 동안 농민들이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느라 분주하다. 이른 새벽부터 논을 오가는 콤바인과 트랙터의 모습은 수확철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일수록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농기계 화재 예방이다.

전북소방본부의 최근 10년간 농기계 화재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화재 204건 가운데 77건(37.7%)이 9월부터 11월 사이 가을철에 발생했다. 특히 가을철 화재 77건 중 콤바인 화재가 46건(5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을철 농기계 화재의 62.3%가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1건(85.4%)은 과열·과부하에 의한 화재였다. 장시간 작업에 따른 엔진 과열이나 벨트류의 마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과 먼지 등이 고온부에 쌓여 착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농기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 전·후 점검과 청소를 생활화해야 한다. 사용 전에는 누유와 전기장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엔진과 배기장치 등 고온부에 볏짚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체인과 양곡기 등에 쌓인 검불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파손된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막힌 짚을 제거하거나 정비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농기계가 도로를 이동할 때는 방향지시등과 후미등, 야간 반사판 등 등화 장치를 미리 확인하고,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농기계는 농촌의 소중한 일손을 덜어주는 고마운 기계지만, 방심하는 순간 한 해 농사의 결실과 소중한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

풍년은 많은 수확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 없이 농민 모두가 안전하게 한 해의 결실을 거두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풍년이라 할 수 있다.

황금빛 들녘이 물들어가는 10월, 농기계 작업 전 한 번 더 점검하고 작업 후 한 번 더 청소하는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수확철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위 한지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 발행·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동상초 지역사회 생태체험



곰소초 염전체험



쌍치초 승마체험



대리초 목공 프로그램



적성초 스쿨팜 감자캐기





소멸 위기 농촌학교의 반전 '전북유학', 국내 넘어 세계 교실 품는다

4년 새 유학생 27명서 354명 13배 급증… 폐교 위기 작은 학교 전교생 반등 견인
마을과 자연이 교과서… 2027년 미주 청소년 대상 '11일 단기캠프'로 국제화 시동
정주 여건·국비 확보 등 과제… '일회성 방문' 벗어난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 관건

학령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통폐합 기로에 섰던 전북의 작은 농촌학교들이 '전북유학'을 발판 삼아 활기를 되찾고 있다.

도입 4년 만에 유학생 수가 13배 이상 늘어나며 작은 학교의 존립을 떠받치는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를 국내를 넘어 해외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국제형 농촌유학'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편집자 주〉

△ 27명에서 354명으로… 작은 학교에 되돌아온 아이들

전북유학은 도시 학생과 가족이 일정 기간 전북의 농어촌 지역에 머물며 학교를 다니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색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상생형 교육 모델이다.

2022년 도내 6개 학교, 학생 27명으로 첫발을 뗀 전북유학은 올해 9월 기준 48개 학교, 354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단순한 유입을 넘어 실질적인 학교 존립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초·중학교 평균 학생 수가 전년 대비 9명 감소하는 동안, 전북유학 운영학교의 평균 전교생 수는 24.5명에서 25.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현재 유학생은 운영학교 전체 학생 수의 27.7%(학교당 평균 7.1명)를 차지하며 교실의 활기를 견인하고 있다.

기존 재학생의 48.0%가 농촌유학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함께 놀 친구가 많아졌다'는 점을 꼽았고,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91.8%, 유학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78.9%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마을 전체가 교과서… 학교마다 색다른 생태·인성 교육

전북유학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정형화된 교실을 벗어나 마을과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특색 교육과정에 있다.

남원 산내초의 경우 콩을 심어 장을 담그고 배추를 길러 김장을 하는 등 절기의 흐름에 맞춘 세시절기 생태·인성교육을 진행한다.

익산 웅포초는 지역 역사·문화 탐방과 방과후 골프, 계절별 수확 체험을 결합했다.

김제 성덕초는 말과 교감하는 승마와 환경을 지키는 자전거 플로깅,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운영한다.

무주 무풍초는 숲 탐색과 함께 스키·바이애슬론 도전을 통해 계절을 체득하며, 임실 지사초의 양궁, 순창 적성초의 1인 1악기 및 오케스트라 활동 등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획일화된 입시 경쟁에 지친 도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북의 농촌을 선택하는 핵심 배경이다.

△ 태평양 건너 교실서 본 가능성… '전북에서 만나는 11일'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국내 농촌유학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국 시애틀과 시카고를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의 물꼬를 텄다.

특히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의 올림픽뷰 K-8 공립학교를 찾아 전북유학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학교는 정규 수업의 약 90%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 공립학교다.

현장에서 논의된 핵심 사업은 해외 청소년 대상 단기 체험캠프 가칭 'A.C.T in Jeonbuk(전북에서 만나는 11일)'이다.

미국 학생들이 전북의 작은 학교에서 도내 학생들과 정규 수업을 함께 듣고, 오후에는 지역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페더럴웨이 교육구 역시 교육구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시애틀한국교육원과의 업무협약, 워싱턴대학교와의 학생 해외연수 실무협의체 구성, 보잉 에버렛 공장과의 이공계 글로벌 브릿지 캠프 논의 등 다각적인 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 '일회성 방문' 경계… 체류 환경·국비 확보 등 실행 체계 선결 과제

장밋빛 구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단순 업무협약이나 기관 간 일회성 교류를 넘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안착하려면 정교한 실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청소년과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주거시설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말 거주시설 확보와 국고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북유학 추진단 TF'를 가동해 운영 기준 개선에 나섰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외 청소년 유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지자체와의 유기적 예산 분담, 교육과정 편제의 유연성 확보, 비자 및 체류 지원 행정망이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성민 기자

